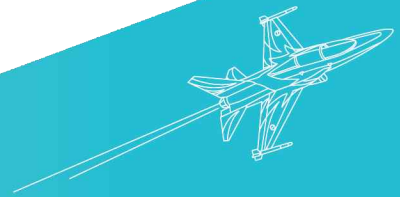


경남미디어 신년 인터뷰 자료



경남미디어 인터뷰

1. 새해 계묘년을 맞았습니다. 먼저 사천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를 기억하며 도약하는 도시! 오늘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찬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 서부경남 염원인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들어설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 부탁한다.

우리 시는 2020년 기준 전국 우주산업 생산액의
33%를 담당하고 있는 우주산업의 집적지이고,
국내 최대 앵커 기업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이 설치되기에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지난 7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홍보 및 건의, 지원시책 발굴 등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 지난 11월 28일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출범과 함께 올해 2023년 개청을 목표로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설립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3. 우주항공청과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정주여건 계획안은?

우리 시는 지난 5월 산·학·관·연 12개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실무 TF팀을 본격 출범시킨 뒤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상업공간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정주 여건을 위한 인프라 구성부터 지원시책 마련까지 우주항공청 설치에 따른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조기 설립 챌린지’가 열리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사전에서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챌린지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뉴스페이스 시대 물결과 격화되는 우주경쟁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작한 것인데,

현재 전국적인 확산추세에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주항공청이 우리 시에 설립돼 우리나라가 우주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우주항공청에 필요한 정주여건 등이 완성됐을 경우
사천에서는 경제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우리나라 항공산업 중심도시인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최대 최고 우주제조업 소재지로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최선봉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주항공청 조직의 신설로 인한
인구 증대의 측면을 벗어나, 우주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정주여건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우리 시만의 경제활성화 효과를 넘어
전국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우주항공청이 설립됐을 경우 사천이 새로운 경남 경제 엔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대한 박 시장님의 생각은?

예.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204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까지 계획대로 육성해나간다면,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7. 박 시장님은 취임 직후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을 2022년 8월 30일에 신청을 받기 시작해 9월 23일 마무리됐다. 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나?

이번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지급액은 324억 5190만원이며, 이 중 99.6%인 323억 3730만원이 기한 내에 사용이 완료됐습니다.

이처럼 100%에 가깝게 사용 완료되어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었고 지역경제 선순환 역할을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명절인 추석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 선불카드도 지급한데다 지역 내 사용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 효과를 배가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 2022년 12월 시장님 핵심 공약사업이자 사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화력발전소 우회도로는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고와 입찰을 완료하고, 1월 중으로 건설사업관리자 선정과 함께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기준 토지 보상협의를 75%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수용 개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은행에 400여 필지에 이르는 편입지 보상을 위탁하고, 보상완료 후 해당 토지를 이관받아 오는 2023년 1월에 착공, 2025년 12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616억원의 예산으로 4.3km, 폭 18m, 왕복 2차선의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은 사천시가 부담하고, 공사비는 (주)고성그린파워가 부담합니다.

우리 시는 화력발전소 관련 대형차량의 우회도로가 확보됨으로써 고질적으로 대형차량의 시가지 내 운행으로 교통불편을 호소하던 시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 박 시장님이 이번 임기 내에 추진하고 싶은 공약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공약 사업 추진으로 어떤 사천을 만들어 가고 싶은지?

12만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출범 처음으로 당초 예산 1조 원 시대를 개막할 수 있도록 1년 365일 동안 발로 뛰는 ‘세일즈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정책 분석을 통한 맞춤형 공모사업 발굴로 국·도비를 확대하고,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경남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에 이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삼천포 앞바다의 5개 섬(저도~마도~두응도~신도~늑도)을 잇는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를 조성해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기존의 산악형 둘레길이 아닌 바다 위를 걸으며 섬과 섬을 탐방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보도교가 조성되면 해양관광 분야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삼천포 도심을 따라 흐르는 삼천포 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청계천처럼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만들겠습니다.

10. 사천지역에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 있을까.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고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시장공약사업이기도 한
지역사랑상품권 100억 원을 2023년 1월 발행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노후시설 보수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전면 취소되었던
전통시장 축제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전통시장별로
특색있는 전통시장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상인회 등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몸에 와 닿는’ 시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11.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 출생지는 어디인가?

-

12. 학교는 어떻게 되나?

-

13.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

14. 정치 입문 후 4선 내리 도의원이 됐다. 연달아 사천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

-

15. 도의원으로 지내면서 도정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로 있었지만, 지금은 시의원들로부터 감시를 받는 자리에 있다. 어떤 점이 다른지?

-

16. 시장으로 당선된 지 6개월이 조금 지났지만, 앞으로 다른 정치 목표가 있을까?

-

17. 정치를 마친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

18. 마지막으로 사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전이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고,

실천할 용기가 없는 도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직 시민들의 힘과 응원을 믿고,

우리 시 전략산업 분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시민의 삶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을 위해
저와 함께 열심히 뛰어 봅시다.

2023년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검은 토끼는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
빠르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부디 올해는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거침없이 성장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